

[발표 2]

청소년의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춘범(연세대 박사과정)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한 중학생이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살해한 적이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보고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 위험의 사용자는 16% (한겨레신문, 2004, 8, 2), 그 외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11%에서 1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Nalwa 외, 2003; 조춘범, 2001; 안정임, 2000). 이는 청소년 100명 중 약 11 - 16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환경요인은 중요한 요인이다. 가정환경인 부모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가정환경의 요인 중 부모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부폭력 노출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요인 중 부부폭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이유는 부부폭력의 발생률이 34.1%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고(김재엽 외, 1999), 부부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김재엽 외, 1997).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유형 중 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 또한 청소년 비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폭력 노출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부폭력 노출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두 변수를 매개할 수 있는 변수로서 '우울'을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검증을 통해 앞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를 마련하고 실천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부부폭력노출경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부폭력은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폭력은 가정폭

력 행위 중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재엽 외, 1999). 따라서 부부폭력은 자녀들에 의해 목격되어 경험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양혜원, 2002). 부부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청소년이 이를 경험하는 정도는 광범위하다(Wyndham, 1998).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의 직·간접적 경험을 표현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목격자(witnesses), 관찰자(observers), 그리고 부부폭력에 노출된(exposed) 이다. 그런데 '목격자'와 '관찰자'라는 용어보다는 '부부폭력에 노출된 자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자녀가 부부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부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정의를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독이란 어떤 특정한 활동 또는 물질에 지나치게 몰입을 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쾌락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물질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의 의존을 의미한다(Marie, 1977).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특정행동에 의한 중독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는 Goldberg(1995)가 처음 사용했다. 인터넷 중독이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 장애, 주의력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정신운동성 행동 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의 병리적 도박 또는 약물남용 장애의 진단준거를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증 공식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일종의 중독(Young, 1999)으로 간주하고, 중독 중에서도 특정행동 중독으로 간주하고 있는 도박에 대해 Young이 DSM-IV에서 병리적 도박을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기준을 제시한 특정행동 중독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했다.

우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SM-IV에 의하면 우울을 기분장애(affect disorder)의 하나로 구분하는데, 슬픈 기분, 비판, 자기비하, 무력감, 절망감, 의욕감퇴, 흥미와 재미의 상실, 죄책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 정신의학에서 논의되는 스트레스 해소 이론(stress-reduction theory)에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울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TV나 전자오락게임 등의 특정대상에 집착하게 된다고 한다(송인덕, 1999).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기분장애로 정의하여 우울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몰입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청소년의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미비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etano(2003)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때 부부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Call(2001)은 아동학대를 당했던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 심각한 물질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Cohen(1982)의 연구에서도 보면 178명의 약물중독자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84%정도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다른 유사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이 물질남용이나 약물중독에 쉽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Walsh, 2002; McGettigan-Savarese, 2001; Wilsnack 외, 1997; Schaefer 외,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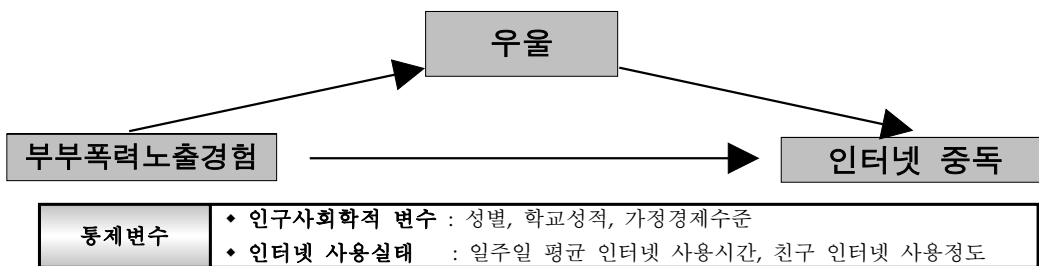
청소년 우울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서의 갈등과 다툼은 자녀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더욱 심하게 겪게 되며,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는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갈등이 자신에 관한 내용일 때 자녀의 부적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정란, 2004, 재인용). 부부갈등과 다툼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부폭력에 노출이 되어진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부폭력 노출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을 나타내며, 공격성의 증가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낸다(Peled & Edleson, 1995; Carlson, 1990; Jaffe 외, 1990; Hughes, 1988).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두 변수가 유의미한 관계임을 입증해 왔지만 인과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우울증상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다. 특히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울이 나타난다. Young(1996)은 우울이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군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연구결과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남영옥, 2002, 재인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2.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3.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4. 우울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2. 측정도구

부부폭력 노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부부폭력 노출경험을 정서적 부부폭력 노출경험으로, 경미와 심각한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경험을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경험으로 하여 측정하여 부부폭력 노출경험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859$ 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검사 도구를 본 조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별 구분은 Young이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점수가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분류하고, 40점에서 69점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집단'으로 분류하고 39점 이하는 인터넷 중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비 중독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867$ 로 나타났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ed Mood Scale(CES-D)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863$ 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SPSS/PC+Package (Versio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여 기술통계, t-test,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회귀분석 조항을 통한 매개변인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독 잠재적 집단이 672명(76.5%), 비 중독집단이 75명(8.5%), 인터넷 중독집단이 132명(15.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집단 비율인 15.0%는 선행연구의 11%~16%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100명 중 약 15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에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부폭력 노출경험 실태는 전체 부부폭력 노출경험의 발생률은 46.6%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10명중 4명 정도가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부부폭력 노출경험 발생률에 있어서는 43.0%, 신체적 부부폭력 노출경험 발생률에 있어서는 23.1%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발생하는 부모간의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고,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간접적인 폭력에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우울수준이 높음을 검증한 결과이다.

다섯째,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 중 우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우울 매개변인을 투입시킨 결과 그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즉 직접적인 영향력 보다는 우울을 경로하는 영향력이 더 크게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부부폭력 노출경험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우울을 유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미비했던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은 중간에서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인터넷 중독을 매개하는 우울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울이 없다고 해서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울은 완전매개변수가 아닌 불완전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가적 개입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찾아오는 서비스보다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국가에서는 학교차원에서라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에서 인터넷 중독이 의심된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별 분석을 해본 결과 인터넷 중독 잠재군에 속하는 집단이 약 76%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 중독이 쉽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교나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에 대해 부모의 개입도 필요하다.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부모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고, 부모간의 의사소통문제나, 부모간의 불완전한 상호작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치료적 측면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른 청소년들은 우울이 증가하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